창사 63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8034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음력 8월 18일)

호남대첩 앞두고 터진 '대장동' 블랙홀

여야, 경선 주자들 상호 난타전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 저조
'明-洛' 양측 캠프 유불리 촉각

25일과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대첩'을 앞두고 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이 블랙홀처럼 여타 경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여야 정치권이 '대장동 특검법'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한데 이어 민주당 대선 경선전에 나선 대권주자들도 상호 입장에 따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성남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상호 난타전도 연일 이어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들의 의심과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당에도 부담이고 관련 후보에도 짐이 될 것이기에 그런 짐은 빨리 벗는 게 좋고 본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몇 가지 의심과 분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면 굉장히 정략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이 지사 측에서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 이 전 대표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1차 슈퍼위크 과반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대세론'을 굳힌 지,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 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발판으로 반전을 이뤄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대표가 추석 연휴기간에 각각 함평과 목포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잡기를 하고 있는 모습.

알 림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영상 공모전

마을공동체 활동가·전남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 마감 10월 22일까지…대상 상금 200만원

광주매일신문은 전남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1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주관하는 이번 영상공모전은 전남지역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남 마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상공모전은 마을공동체의 활동상을 널리 알려 참여자와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활동 영상과 마을 주민들의 삶의 현장, 마을의 역사와 문화 설화 등의 스토리텔링을 비롯, 주민들의 노동요와 축제, 마을 자랑 등을 영상에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비롯해 전남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휴대폰과 카메라 등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1920*1080 해상도 이상의 3분내외 분량) 파일이면 됩니다. 다만 드론 촬영은 제외하며, 영상제작 관련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상작은 상장과 함께 대상 200만원 등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출품형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전남지역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개요
- ●명 칭: 2021전라남도 마을공동체영상 공모전
- ●응모 대상: 전남도민 누구나(단 영상제작 관련 사업자 제외)
- ●부 문: 영상(3분 내외, 드론촬영 제외)
- ●접수 기간: 2021년 9월 23일-10월 22일
- ●접수 방법 및 출품 형식: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주 최: 전라남도
◇주 관: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광주매일신문

정부·한전, 전기요금 전격 인상 결정

10월부터… 4인 가구 월평균 1천50원 올라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관련기사 12면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천5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은성 기자

추석 연휴 끝났지만…이번 주 확산세 분수령

광주·전남 명절 연휴기간 만남 뒤 확진 사례 잇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추석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선 연휴 기간 가족 모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가족·지인 간 'n차 감염'도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모두 37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4천79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14명 ▲동구 사우나 관련 2명 ▲기존 확진자 관련 11명 ▲타 시·도(남양주·서울 서초구)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8명 등으로 기존 확진자 관련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동구 소재 사우나에서는 방문자와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9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은 같은 국적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접촉자들이 나왔으나 내국인은 상대적으로 동선과 접촉 반경이 넓어 지인·가족 등 추가 감염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9일 염주체육관 잔디밭에 앉아 체육관 매점에서 구입한 술과 음식을 먹은 한 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자 재난 안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남에서는 이날 도내 9명(순천 3명, 보성·영암 각 2명, 나주·고흥 각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934-2942번으로 분류됐다. 이 중 6명이 타지역 관련 확진자다.

순천과 보성에서는 명절기간 가족과의 접촉에서, 고흥 확진자는 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발생한 전남지역 확진자 15명 중 절반 이상도 타지역 관련 확진자다. 역학조사 결과 9명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 그와 접촉한 도민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 전후로 가족이 있는 전남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다.

전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선제 검사와 재난문자 등을 통해 감염고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승지·임후성 기자

Today
-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5면
- 국창 임방울국악제 내달 1일 개막 14면
- EPL서 만난 손흥민-황희찬 16면

CMYK